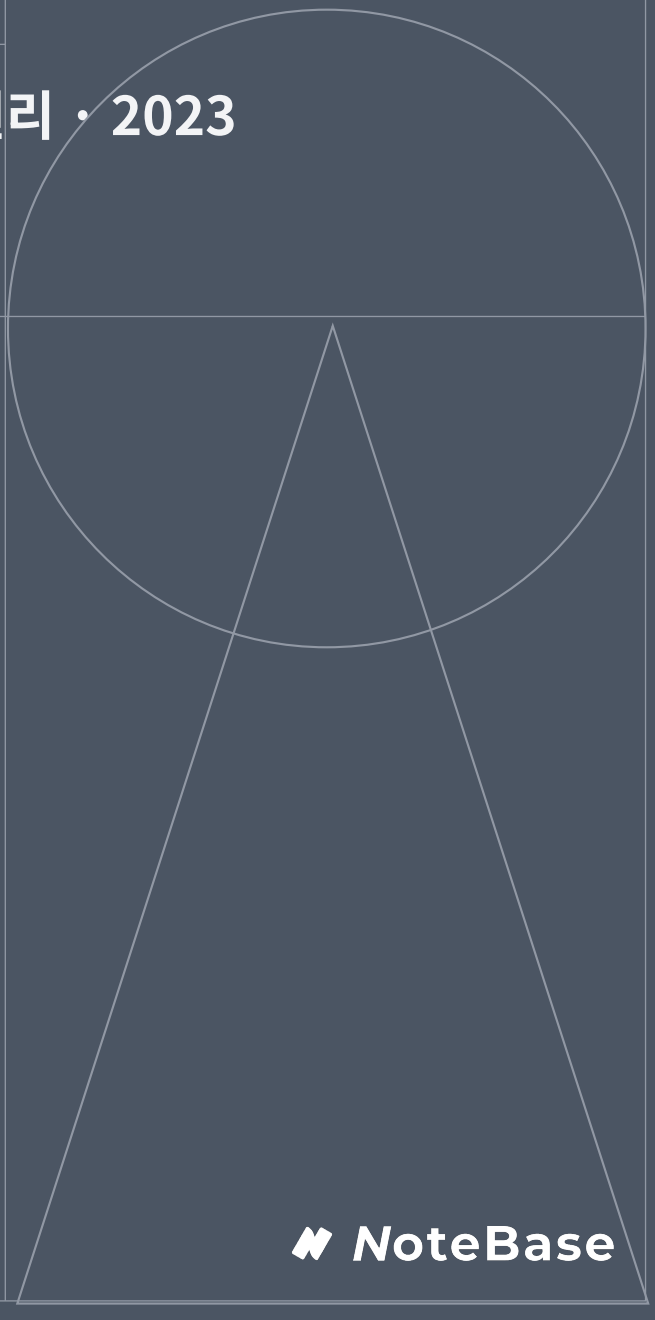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3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원리 · 2023

문 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건물을 ₩110에 취득하였다. 건물의 잔존가치는 ₩10이며,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로 하였다. 해당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가상각대상금액 ₩110이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배분된다.

② 20×1년에 인식되는 감가상각비는 ₩10이다.

③ 20×2년 말 해당 건물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으로 보고된다.

④ 20×3년 말 해당 건물의 장부금액은 ₩80으로 보고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 전액이 아니라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110에서 잔존가치 ₩10을 뺀 **₩100**을 내용연수 10년에 걸쳐 배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다. 잔존가치는 내용연수가 끝난 뒤에도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므로 감가상각으로 배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10년에 걸쳐 배분할 금액은 ₩110이 아니라 **₩110 − ₩10 = ₩100**이다.

② O: 정액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110-10}{10}=10$으로 ₩10이다. 20×1년 1월 1일 취득하여 **첫해부터 1년분**을 인식하므로 20×1년 감가상각비는 ₩10이다.

③ O: 감가상각누계액은 취득 이후 해당 시점까지 인식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이다. 20×1년과 20×2년의 감가상각비가 각각 ₩10이므로, 20×2년 말 감가상각누계액은 ₩10 × 2 = ₩20이다.

④ O: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구한다. 20×3년 말까지 3년간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10 × 3 = ₩30이므로, 건물의 장부금액은 ₩110 − ₩30 = ₩80이다. 잔존가치는 연간 감가상각비를 구할 때 이미 반영했으므로 장부금액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도 자기주식과 관련된 거래이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

ㄱ. 자기주식 1,000주를 주당 ₩700에 취득하였다.
ㄴ. 자기주식 200주를 주당 ₩800에 재발행하였다.
ㄷ. 자기주식 300주를 소각하였다.
ㄹ. 자기주식 500주를 주당 ₩600에 재발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 항목이므로, 재발행하면 받은 대금만큼 자본 총계가 증가한다. 취득원가보다 낮게 재발행해도 자본 총계는 **현금 유입액만큼 증가**한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자산이 아니라 자본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기주식 거래에서는 개별 자본항목의 변동과 자본 총계의 변동을 구분해야 한다.

ㄱ. 자본 총계 감소: 1,000주를 주당 ₩700에 취득하면 현금 700,000원이 유출되고, 같은 금액을 자기주식으로 자본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자본 총계는 700,000원 감소**한다.

ㄴ. 자본 총계 증가: 200주를 주당 ₩800에 재발행하면 현금 160,000원이 유입된다. 재발행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 200주 × 700원 = 140,000원이 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거되고, 차액 2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자본에 가산된다. 두 효과를 합하면 **자본 총계는 160,000원 증가**한다.

ㄷ. 자본 총계 불변: 소각한 자기주식 300주의 취득원가는 300주 × 700원 = 210,000원이다. 소각하면 자기주식 차감액 210,000원이 없어지는 동시에 다른 자본항목도 합계 210,000원 감소한다. 이는 **자본 내부의 항목 간 변동**이며 현금의 추가 유출입이 없으므로 자본 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ㄹ. 자본 총계 증가: 500주를 주당 ₩600에 재발행하면 현금 300,000원이 유입된다. 자기주식의 취득원가 500주 × 700원 = 350,000원이 자본 차감 항목에서 제거되고, 취득원가보다 적게 받은 차액 50,000원은 다른 자본항목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자본 총계의 증가액은 350,000원 − 50,000원 = 300,000원이다. **취득원가보다 낮은 재발행 가격**이 자본 총계의 감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거래는 ㄴ과 ㄹ이며, 이 조합은 ③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이 20×1년도 초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해당 건물에 대하여 원가모형과 공정가치모형을 각각 적용하였을 경우,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취득원가: ₩50,000 ◯ 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0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20×1년 말 공정가치: ₩60,000

① 원가모형: ₩ 0, 공정가치모형: ₩ 0
② 원가모형: ₩ 10,000 감소, 공정가치모형: ₩ 20,000 증가
③ 원가모형: ₩ 10,000 감소, 공정가치모형: ₩ 10,000 증가
④ 원가모형: ₩ 20,000 증가, 공정가치모형: ₩ 20,000 감소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원가모형에서는 **감가상각비 10,0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하지 않고, 취득원가보다 높아진 **공정가치 증가분 10,000원**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계산 과정

투자목적으로 보유한 건물은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한다. 취득원가는 50,000원이며, 20×1년 초에 취득하였으므로 원가모형의 감가상각비는 1년분을 계산한다.

원가모형: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동일하게 배분하는 방법이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50,000-0}{5}=10,000$원이다. 이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0,000원 감소하고, 기말 장부금액은 50,000 - 10,000 = 40,000원이다. 원가모형에서는 **공정가치 상승분을 평가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을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이 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기 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인 50,000원이다. 따라서 평가이익은 60,000 - 50,000 = 10,000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한다. 원가모형에서 계산한 감가상각 후 금액 40,000원을 이 모형의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두 모형의 당기순이익 영향은 각각 원가모형 10,000원 감소, 공정가치모형 10,000원 증가이므로 ③의 금액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0인 사채(액면이자율 8%, 만기 3년)를 ₩950,263에 발행하였다. (주)한국이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액면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한다)

① 사채발행 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② 매년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③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비용의 총액은 ₩240,000이다.

④ 이자비용으로 지출하는 현금은 매년 ₩80,000으로 일정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40,000은 3년간 지급하는 **현금이자의 총액**이다. 이자비용에는 **할인발행차금 ₩49,737**도 포함되므로, 만기까지 인식할 이자비용 총액은 ₩289,737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발행금액 ₩950,263이 액면금액 ₩1,000,000보다 작으므로 할인발행이다. 투자자가 요구하는 시장이자율에 비해 약정된 액면이자율 8%가 낮으면, 투자자는 액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액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② O: 유효이자율법에서 매년 이자비용은 **기초 사채 장부금액 × 발행 시 시장이자율**로 계산한다. 할인발행 사채는 이자비용이 현금이자보다 크며, 그 차액인 할인발행차금 상각액만큼 장부금액이 증가한다. 같은 이자율을 점점 커지는 장부금액에 적용하므로 매년 이자비용도 증가한다.

③ X: 3년간 현금이자 총액은 ₩80,000 × 3년 = ₩240,000이다. 그러나 액면금액보다 적게 받은 ₩1,000,000 − ₩950,263 = ₩49,737의 할인발행차금도 만기까지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자비용 총액은 현금이자 총액에 할인발행차금을 더한 금액**으로, ₩240,000 + ₩49,737 = ₩289,737이다. 선지의 ₩240,000은 이자비용 총액이 아니라 현금이자 총액이다.

④ O: 매년 말 지급하는 현금이자는 **액면금액 × 액면이자율**로 계산하므로 ₩1,000,000 × 8% = ₩80,000으로 일정하다. 할인발행차금 상각으로 인식하는 추가 이자비용은 매년 별도로 현금을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이자비용이 증가해도 연간 현금이자는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기계장치(정액법 상각,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를 ₩36,000에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기계장치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2년 말에 인식해야 할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혹은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구 분	20×1년 말	20×2년 말
순공정가치	₩ 25,000	₩ 17,000
사용가치	₩ 24,000	₩ 19,000

① ₩ 2,000

② ₩ 3,000

③ ₩ 4,000

④ ₩ 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손상차손을 환입한 후의 장부금액은 **손상이 없었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 20×2년 말에는 회수가능액이 19,000원이지만 환입 한도가 되는 장부금액은 18,000원이므로, 환입 전 장부금액 15,000원과의 차이인 3,000원을 환입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20×1년 감가상각: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36,000 − 0) ÷ 3 = 12,000원이다. 7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첫해에는 6개월분만 상각하여, 감가상각비는 $12,000 \times \frac{6}{12} = 6,000$원이다. 손상 인식 전 장부금액은 36,000 − 6,000 = 30,000원이다.

2. 20×1년 말 손상차손: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다. 표의 20×1년 말 순공정가치 25,000원과 사용가치 24,000원 중 큰 금액은 25,000원이다. 장부금액 30,000원이 이를 초과하므로 손상차손 5,000원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25,000원으로 낮춘다.

3. 20×2년 감가상각: 손상 이후에는 **손상 후 장부금액을 남은 내용연수에 배분**한다. 20×1년 말 남은 내용연수는 36 − 6 = 30개월이며 잔존가치는 0원이다. 따라서 20×2년의 12개월분 감가상각비는 $25,000 \times \frac{12}{30} = 10,000$원이고, 환입 전 장부금액은 25,000 − 10,000 = 15,000원이다.

4. 20×2년 말 환입 한도: 표의 순공정가치 17,000원과 사용가치 19,000원 중 큰 금액인 19,000원이 회수가능액이다. 다만 원가모형에서는 환입 후 장부금액이 **과거에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손상이 없었다면 20×2년 말 장부금액은 36,000 − 6,000 − 12,000 = 18,000원이므로, 회수가능액이 19,000원이어도 장부금액은 18,000원까지만 회복시킨다.

5. 손상차손환입액: 허용되는 환입 후 장부금액 18,000원에서 환입 전 장부금액 15,000원을 뺀다. 손상차손환입액은 18,000 − 15,000 = 3,000원이며,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유형자산에 대한 후속 원가의 예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단, 후속 원가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① 기계장치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부품의 부착

② 내용연수를 연장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기존 부품의 교체

③ 기계설비의 성능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부품의 교체

④ 자동차의 성능을 유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윤활유의 교체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윤활유 교체는 자동차의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생산능력을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늘려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과 성격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유형자산의 후속 원가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이처럼 자산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반면 일상적인 유지·보수 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다. 문제에서는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을 전제하므로 각 지출이 가져오는 효익의 성격을 비교한다.

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부품의 부착: 기계장치의 **생산능력이 증가**하면 앞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나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한다. 따라서 부품 부착 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②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기존 부품의 교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교체 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③ 성능을 증가시키는 핵심 부품의 교체: 핵심 부품을 바꾸어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교체 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④ 성능을 유지하는 윤활유의 교체: 윤활유를 교체하여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일상적인 정비**이다. 따라서 윤활유 교체 원가는 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①·②·③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고, ④는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성격이 다르다.

NoteBase

문 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②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익은 충당부채를 측정하는 데 고려한다.

③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다면, 관련 자산은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해당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현재의무를 우발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하면 관련 자산은 더 이상 우발자산이 아니므로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더라도 거의 확실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의무 이행에 따른 자원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주석으로 공시**한다. 과거 사건에 따른 현재의무가 있고,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의무 이행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② X: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충당부채를 생기게 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도, 예상 처분이익은 **충당부채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처분이익으로 의무 이행에 필요한 지출액을 미리 줄여서는 안 되며, 처분이익은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별도로 인식한다.

③ O: 우발자산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따라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으로, 원칙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익의 실현이 거의 확실**해지면 더 이상 우발자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련 자산을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정도라면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한다.

④ X: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이 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는 우발부채가 아니라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계약에서 피할 수 없는 손실을 부담할 현재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NoteBase

문 8.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 20×1년 기말재고자산 금액은? (단, 재고자산에 대한 감모 및 평가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 기초상품재고액은 ₩5,000(개당 취득원가 ₩500)이다.
◯ 기중에 상품 100개(개당 매입가격 ₩500)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운임으로 개당 ₩50이 지출되었다.
◯ 기중에 매입한 상품 중 하자가 있어 개당 ₩50의 할인(매입에누리)을 받았다.
◯ 기중에 상품 50개를 판매하였다.

① ₩ 25,000
② ₩ 30,000
③ ₩ 35,000
④ ₩ 4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기말재고로 남는다**. 기말수량 60개에 매입운임과 매입에누리를 반영한 개당 취득원가 500원을 적용하면 기말재고자산은 30,000원이다.

계산 과정

기중 매입상품의 단위원가: 상품을 취득하는 데 든 매입운임은 원가에 더하고, 하자로 받은 매입에누리는 원가에서 뺀다. 따라서 개당 취득원가는 500 + 50 − 50 = 500원이다.

기초상품 수량: 기초상품재고액이 5,000원이고 개당 취득원가가 500원이므로, 기초수량은 $\frac{5,000}{500} = 10$개이다.

기말재고 수량: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상품의 원가부터 매출원가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판매한 50개에는 기초상품 10개와 기중 매입상품 40개의 원가가 배분된다. 따라서 기말에는 기중 매입상품 100 − 40 = 60개가 남는다.

기말재고자산 금액: 남은 60개에 기중 매입상품의 개당 취득원가 500원을 적용한다. 감모와 평가손실이 없으므로 추가 차감 없이 60 × 500 = 3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9. 현금흐름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금흐름표는 일정시점의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② 현금흐름표상의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③ 현금흐름표는 다른 재무제표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 순자산의 변화, 재무구조(유동성과 지급능력 포함),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④ 역사적 현금흐름정보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 자주 사용된다. 또한 과거에 추정한 미래현금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수익성과 순현금흐름 간의 관계 및 물가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일정시점'은 **'일정기간'**으로 고쳐야 한다. 현금흐름표는 한 기간 동안 현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보여 주며,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보여 주는 재무상태표와 구별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동안의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일정시점'을 '일정기간'으로 고쳐야 한다. 일정시점의 자산·부채·자본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이다.

② O: 현금흐름은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영업활동은 주요 수익창출활동과 투자활동·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기타 활동이며, 투자활동은 장기성 자산과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자산의 취득·처분 활동이다. 재무활동은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이다. 이러한 구분은 현금의 증감이 어느 활동에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게 한다.

③ O: 현금흐름표를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보면 순자산이 변한 원인과 자금의 조달·사용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 유입·유출 내역은 단기적인 지급 요구에 대응하는 유동성과 채무를 감당하는 지급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살펴보면 상황 변화나 새로운 기회에 맞추어 자금 흐름을 조절할 능력도 평가할 수 있다.

④ O: 과거의 현금흐름은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시기·확실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과거 예측치와 실제 현금흐름을 비교하면 예측의 정확성도 검증할 수 있다.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수취·지급 시점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익과 순현금흐름을 함께 살펴보면 수익성이 실제 현금 창출로 이어지는 정도를 이해할 수 있다. 기간별 현금흐름 정보를 물가변동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NoteBase

문 10.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정의된 (가)~(다)에 들어갈 재무제표 요소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에서 논의된 사항	재무제표 요소	정의 또는 설명
재무성과를 반영하는 경제적자원 및 청구권의 변동	(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
	비용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
청구권	(나)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
	자본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
경제적자원	(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① (가): 자산, (나): 부채, (다): 수익

② (가): 자산, (나): 수익, (다): 부채

③ (가): 수익, (나): 자산, (다): 부채

④ (가): 수익, (나): 부채, (다): 자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가 자본을 늘리더라도 **소유자의 출자는 수익에서 제외**한다. 또한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자원과 그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빈칸별 해설

(가) 수익: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을 말하되, **자본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증가는 제외**한다. 예를 들어 주주의 출자로 현금과 자본이 늘어도 수익은 아니다. 표에서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변동이고, 수익은 그 반대로 자본을 증가시키는 변동이다.

(나) 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무**이다. 차입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처럼 기업이 자원을 내주어야 하는 측면을 나타내므로, 기업이 통제하는 자원인 자산과 구별된다.

(다) 자산: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다. 여기서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따라서 자산은 자본을 늘리는 변동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현재 통제하는 자원을 뜻한다.

(가)는 수익, (나)는 부채, (다)는 자산이므로 ④의 연결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② 비교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가능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③ 보강적 질적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특성은 정보가 목적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④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어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비교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같은 경제적 현상을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법으로 나타내면 보고된 차이가 경제적 실질의 차이인지 회계처리방법의 차이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표현충실성에서 **오류가 없다는 것은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상의 설명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하고 적용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추정금액은 추정치라는 사실과 추정 과정의 성격·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절한 추정 절차를 오류 없이 적용하면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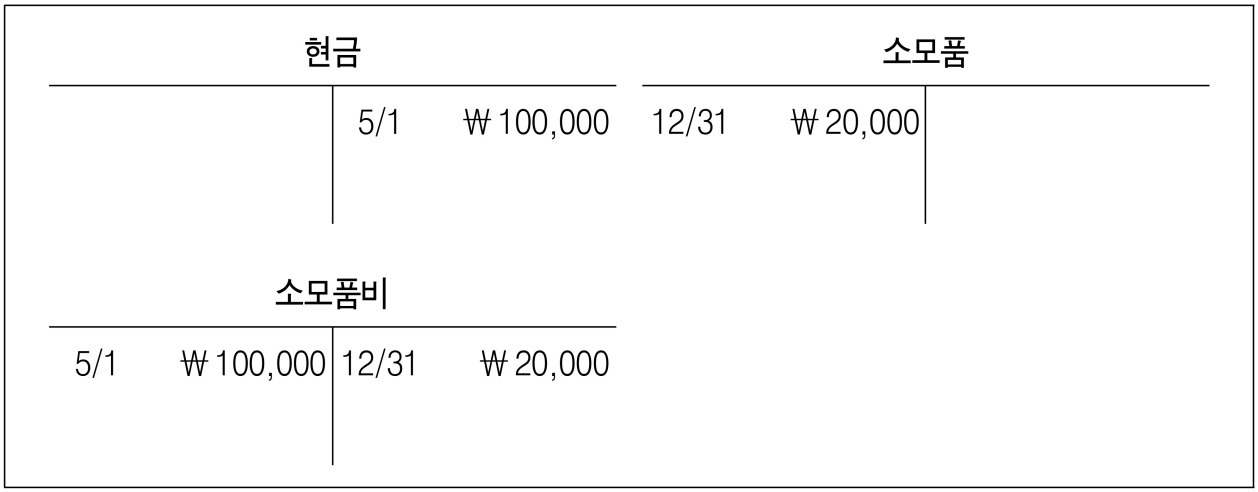
② O: 비교가능성은 항목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따라서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다른 것은 다르게** 나타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제적 현상을 억지로 같게 표시하는 통일성은 오히려 실제 차이를 가려 비교가능성을 높이지 못한다.

③ O: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으로, 가능한 한 극대화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이미 유용한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는 특성이므로 **근본적 질적특성인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을 대신할 수 없다**.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거나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정보는 보강적 질적특성만으로 유용해지지 않는다.

④ X: 동일한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면 기업 간 또는 기간 간 보고금액의 차이에 회계처리방법의 차이가 섞이므로, 그 차이가 경제적 현상의 실제 차이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대체적 방법의 허용은 **비교가능성을 감소시킨다**. '증가한다'를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2. ㈜한국의 20×1년 말 소모품 관련 총계정원장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1년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모품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0,000이다.

② 소모품 관련 수정분개는 '(차)소모품 ₩20,000 (대)소모품비 ₩20,000'이다.

③ 기말 소모품 잔액은 ₩20,000이다.

④ 5월 1일 소모품 구입 시 지출한 현금 ₩100,000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소모품비 계정 대변의 20,000원은 비용을 추가한 금액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을 자산으로 돌리면서 **비용에서 차감한 금액**이다. 당기 소모품비는 100,000원에서 20,000원을 뺀 **80,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소모품비 계정에는 5월 1일 차변에 100,000원, 12월 31일 대변에 2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비용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므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100,000 − 20,000 = 80,000원이다. 선지의 20,000원은 비용이 아니라 **기말에 남아 있는 소모품의 자산 금액**이다.

② O: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기록했으므로, 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20,000원은 **비용을 줄이고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 수정분개는 '(차) 소모품 20,000원 / (대) 소모품비 20,000원'이다. 이는 소모품 계정 차변과 소모품비 계정 대변의 기록에 각각 대응한다.

③ O: 소모품은 아직 사용하지 않아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다. 소모품 계정에는 12월 31일 차변에 20,000원만 기록되어 있으므로, **기말 차변 잔액은 20,000원**이다.

④ O: 5월 1일 현금 계정 대변의 100,000원은 현금 지출을, 같은 날 소모품비 계정 차변의 100,000원은 비용 인식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입 시 분개는 '(차) 소모품비 100,000원 / (대) 현금 100,000원'으로, 지출액을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20x1년 7월 1일 창고를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 ₩300,000을 현금 수령하여 임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이 임대료와 관련하여 기말 수정분개를 하지 않은 경우,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① 부채와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대계상된다.

② 부채는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③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된다.

④ 자산은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미리 받은 임대료 중 다음 해 6개월분 150,000원은 수익이 아니라 **부채인 선수수익**이다. 이를 수익에서 빼는 수정분개를 생략하면 **부채는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과대계상**된다.

핵심 풀이

임대료의 기간 배분: 임대료수익은 현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창고를 사용하게 해 준 기간에 따라 인식한다. 20x1년 7월 1일에 받은 300,000원 중 7~12월의 6개월분만 당기 수익이며, 그 금액은 $300{,}000 \times \frac{6}{12} = 150{,}000$원이다. 나머지 150,000원은 다음 해 1~6월에도 창고를 사용하게 해 줄 의무에 해당하므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남겨야 한다.

필요한 기말 수정분개: 수령 시 300,000원 전액을 임대료수익으로 기록했으므로, 아직 수익이 아닌 150,000원을 수익에서 부채로 옮겨야 한다. 수정분개는 차변에 임대료수익 150,000원, 대변에 선수수익 150,000원이다. 이는 **수익을 줄이고 부채를 늘리는** 분개이다.

수정분개 누락의 영향: 선수수익을 기록하지 않으면 부채가 150,000원 적게 표시된다. 임대료수익도 150,000원 많게 남아 있으므로 당기순이익이 같은 금액만큼 크게 표시된다. 현금은 이미 수령하여 기록했으며 수정분개에도 자산 계정이 없으므로 **자산 금액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부채는 150,000원 과소계상되고 당기순이익은 150,000원 과대계상된다.

NoteBase

문 14.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과 같은 개발단계의 지출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②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과 같은 연구단계의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④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내부 프로젝트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의 지출**로 보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개발단계로 보아 무형자산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제작·시험하는 활동은 연구결과나 지식을 구체적인 제품 등에 적용하는 개발활동이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완성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의도, 사용하거나 판매할 능력, 미래경제적효익의 창출 가능성,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자원 등의 확보, 개발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② O: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활동이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관련 지출을 자산으로 쌓아 두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③ O: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기업의 평판 등에서 기대되는 효익과 관련되지만, 기업이 통제하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다**. 또한 그 원가를 기업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 등과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④ X: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를 구분할 수 없다면, 그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발단계의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을 구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를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이 20×1년 초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150,000에 일괄 취득하였다. 취득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100,000이다. (주)한국은 매년 말 토지를 재평가하며, 토지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20×4년 초 토지를 ₩90,000에 처분하였으며, 처분시점에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였다. (주)한국의 토지와 관련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20×1년 말	20×2년 말	20×3년 말
공정가치	₩ 80,000	₩ 70,000	₩ 90,000

① 20×1년도 당기손익의 증감은 없고 기타포괄이익 ₩5,000이 증가한다.

② 20×2년도 당기손실 ₩5,000이 발생하고 기타포괄이익 ₩5,000이 감소한다.

③ 20×3년도 당기손익의 증감은 없고 기타포괄이익 ₩20,000이 증가한다.

④ 20×4년도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20×3년의 토지 재평가 증가액 20,000원 중 **전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5,000원은 당기이익으로 환입**한다.
따라서 당기이익은 5,000원 증가하고, 기타포괄이익은 나머지 15,000원 증가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면 총 취득금액을 각각의 공정가치 비율로 배분한다. 두 자산의 공정가치가 각각 100,000원으로 같으므로 토지의 취득원가는 $150,000 \times \frac{100,000}{200,000} = 75,000$원이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으므로 매년 말 재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직전 재평가 후 금액과 같다.

① O: 20×1년 말 공정가치는 80,000원이므로 재평가 증가액은 80,000 − 75,000 = 5,000원이다.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없으므로 증가액 전부를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하여 재평가잉여금에 누적**한다. 당기손익에는 영향이 없다.

② O: 20×2년 말 공정가치는 70,000원이므로 재평가 감소액은 80,000 − 70,000 = 10,000원이다. 이 중 기존 재평가잉여금 5,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포괄이익의 감소로 처리하고, **재평가잉여금을 초과하는 5,000원은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처리 후 토지 장부금액은 70,000원, 재평가잉여금 잔액은 0원이다.

③ X: 20×3년 말 공정가치는 90,000원이므로 재평가 증가액은 90,000 − 70,000 = 20,000원이다. 재평가로 가치가 회복되면 **같은 토지에 대해 과거 당기손실로 인식한 금액을 먼저 당기이익으로 환입**한다. 따라서 전기 손실 5,000원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20,000 − 5,000 = 15,000원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다. '당기손익의 증감은 없고 기타포괄이익 20,000원이 증가한다'는 '당기이익 5,000원과 기타포괄이익 15,000원이 증가한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20×4년 초 처분금액 90,000원과 토지 장부금액 90,000원이 같아 처분손익은 0원이다. 재평가잉여금 15,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면 재평가잉여금은 15,000원 감소하고 이익잉여금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이 대체는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 **자본 내부의 이동**이므로 자본 총계에는 영향이 없다.

NoteBase

문 16. 다음은 상품매매기업인 (주)한국의 재고자산에 대한 자료이다.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른 결산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 기초상품재고액: ₩1,000 ◯ 당기상품매입액: ₩6,000
◯ 기말상품재고액: ₩2,000

① (차): 상품 ₩2,000, 매출원가 ₩5,000
(대): 매입 ₩7,000

② (차): 매입 ₩5,000
(대): 매출원가 ₩5,000

③ (차): 매입 ₩6,000, 상품 ₩1,000
(대): 매출원가 ₩7,000

④ (차): 상품 ₩2,000, 매출원가 ₩5,000
(대): 상품 ₩1,000, 매입 ₩6,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재고를 뺀 **5,000원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결산 때 기초 상품과 매입 계정의 잔액을 대변에서 제거하고, **기말 상품 2,000원**을 차변에 새로 기록한다.

계산 과정

실지재고조사법은 판매할 때마다 매출원가를 기록하지 않고, 결산 때 확인한 기말재고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한다. 기초상품재고액 1,000원과 당기상품매입액 6,000원의 합계 7,000원은 당기에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원가이다. 이 중 **기말에 남은 상품의 원가를 제외**하므로, 매출원가 = 1,000 + 6,000 − 2,000 = 5,000원이다.

결산수정 전 상품 계정에는 기초재고 1,000원이, 매입 계정에는 당기매입액 6,000원이 차변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를 정리하려면 **상품 1,000원과 매입 6,000원을 대변**에 기록한다. 동시에 기말재고를 자산으로 남기기 위해 상품 2,000원을 차변에 기록하고, 당기에 판매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 5,000원도 차변에 기록한다.

이를 하나의 결산수정분개로 합치면 다음과 같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각각 7,000원이며, ④의 분개와 일치한다.
(차): 상품 ₩2,000, 매출원가 ₩5,000
(대): 상품 ₩1,000, 매입 ₩6,000

NoteBase

문 17. (주)한국의 수정전시산표상 수익총액은 ₩800,000이며 비용총액은 ₩500,000이다. 다음의 결산수정사항을 반영할 경우, (주)한국의 당기순이익은?

◯ 당해연도에 이자수익 ₩60,0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 당해연도에 발생한 급여 ₩80,000을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
◯ 보험료 ₩120,000을 지급하면서 전액 자산으로 인식하였으나 이 중 다음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90,000이다.
◯ 임대료 ₩240,000을 수취하면서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으나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80,000이다.

① ₩30,000
② ₩90,000
③ ₩110,000
④ ₩17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당기순이익에는 **당해연도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만 반영한다. 누락된 수익·비용과 보험료·임대료의 기간 귀속을 조정하면 수정 전 이익 300,000원에서 210,000원이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90,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수정 전 이익: 당기순이익은 당해연도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다. 수정전시산표의 수익 800,000원에서 비용 500,000원을 빼면 수정 전 이익은 300,000원이다. 여기에 각 결산수정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이자수익: 당해연도에 발생했으나 기록하지 않은 60,000원은 **미수수익으로 추가 인식**한다. 이자수익이 60,000원 증가하므로 이익도 60,000원 증가한다.

급여: 당해연도에 발생했으나 기록하지 않은 80,000원은 미지급비용으로 인식한다. 급여 비용이 80,000원 증가하므로 이익은 80,000원 감소한다.

보험료: 지급액 120,000원을 전액 자산으로 기록했으므로 보험료 비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다음연도분 90,000원은 선급보험료로 남기고, **당해연도분 30,000원**(120,000 − 90,000)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임대료: 수취액 240,000원을 전액 수익으로 기록했지만 당해연도분은 80,000원이다. 차액 160,000원(240,000 − 80,000)은 **선수수익인 부채**로 돌려야 하므로 임대료수익과 이익이 각각 160,000원 감소한다.

수정 후 당기순이익: 이익의 순감소액은 80,000 + 30,000 + 160,000 − 60,000 = 210,000원이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은 300,000 − 210,000 = 9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한국의 20×1년 3월 20일 당좌비율은 75%, 유동비율은 140%이다. ㈜한국이 20×1년 3월 30일 매입채무를 현금 ₩100,000으로 상환할 경우,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당좌비율: 증가, 유동비율: 증가

② 당좌비율: 감소, 유동비율: 증가

③ 당좌비율: 감소, 유동비율: 감소

④ 당좌비율: 변동 없음, 유동비율: 변동 없음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입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면 당좌자산·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이때 100% 미만인 **당좌비율 75%는 감소**하고, 100% 초과인 **유동비율 140%는 증가**한다.

공통 해설

당좌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이고,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현금은 당좌자산이면서 유동자산이고, 매입채무는 유동부채이다. 따라서 3월 30일 매입채무를 현금 100,000원으로 상환하면 두 비율의 분자인 당좌자산·유동자산과 분모인 유동부채가 각각 100,000원씩 감소한다.

분자와 분모에서 같은 금액을 차감하면 두 금액의 차이는 그대로이지만 분모는 작아진다. 분자가 분모보다 작으면 부족액이 분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비율이 더 낮아지고,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초과액의 비중이 커져 비율이 더 높아진다. 즉, 상환 후에도 분모가 양수일 때 **100% 미만인 비율은 감소하고, 100% 초과인 비율은 증가**한다.

3월 20일 당좌비율 75%는 당좌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적다는 뜻이므로 현금 상환 후 감소한다. 유동비율 140%는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다는 뜻이므로 현금 상환 후 증가한다. 따라서 이 상환거래의 영향은 당좌비율 감소, 유동비율 증가이다.

NoteBase

**문 19. (주)한국은 20×2년 말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사항을 발견하였다.
(주)한국의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20×2년 외상매입액 ₩10,000을 20×1년에 매입으로 회계처리하였음
◯ 20×1년 기말재고자산 ₩20,000이 과대계상되었음

① ₩10,000 감소
② ₩10,000 증가
③ ₩30,000 감소
④ ₩30,000 증가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외상매입액을 해당 연도로 옮기면 20×2년 매출원가가 10,000원 증가하고, 전기 말 재고 과대계상을 수정하면 당기 기초재고가 줄어 매출원가가 20,000원 감소한다. 두 효과를 합하면 매출원가가 10,000원 감소하므로 **당기순이익은 10,000원 증가**한다.

계산 과정

20×2년 말 장부 마감 전이므로 오류를 수정하기 전과 후의 20×2년 당기순이익을 비교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자산에 당기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고자산을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기초재고자산이나 당기매입액이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증가하고, 다른 조건이 같으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감소한다.

외상매입액 10,000원의 귀속연도 수정: 20×2년 매입을 20×1년에 미리 기록했으므로 20×2년 당기매입액이 10,000원 과소계상되어 있다. 이를 **실제 귀속연도인 20×2년의 매입**으로 반영하면 당기매입액과 매출원가가 각각 10,000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10,000원 감소한다.

20×1년 기말재고자산 20,000원의 과대계상 수정: 전기 말 재고자산은 당기 초 재고자산으로 이어지므로 20×2년 기초재고자산도 20,000원 과대계상되어 있다. 이를 수정하면 **당기 기초재고자산이 20,000원 감소**하여 매출원가가 20,000원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20,000원 증가한다.

전체 영향: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20,000 − 10,000 = 10,000원이다. 따라서 오류수정 후 20×2년 당기순이익은 수정 전보다 10,000원 증가하며, 이는 ②의 금액과 방향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0.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할 수 있지만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필요에 따라 추가공시한 경우 포함)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③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④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석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당기손익 부분을 별개의 손익계산서로 표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잘못되었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은 한 보고서에 구분하여 표시할 수도 있고, **당기손익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수도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단일의 포괄손익계산서 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방식과, **당기손익을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방식**이 모두 허용된다. 별개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 이를 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바로 앞에 제시하고, 뒤의 보고서는 당기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과 총포괄손익을 보여 준다. 따라서 '표시할 수 없다'를 '표시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공정한 표시란 거래와 그 밖의 사건이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공시까지 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것으로 본다. 기준의 구체적 요구사항만으로 이용자의 이해에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O: 상계는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차감하여 순액만 표시하는 것이다. 상계하면 각 항목의 규모와 거래의 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하지 않는다**. 기업이 임의로 자산과 부채 또는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여 표시할 수는 없다.

④ O: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였다는 기재는 재무제표가 **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뜻이다. 일부 요구사항만 충족한 재무제표에는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다고 기재할 수 없다.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석에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한다.

NoteBase